

2학년 4반 월 독서토론

조이름 : 52

조원 : 양하늘, 김나래, 양광희, 유소린, 이주연, 홍은혜

도서명	
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	
<p>사실 이 책은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,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 흥미가 있어 읽었는데 재미있었다.</p> <p>이제야 동화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.</p>	
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	
이주연 - 우리 소설가리엔 각자표현을 하나 쓸 것 같다. 제법 재미있고 신기한 느낌이다.	이주연 - 우리 소설가리엔 각자표현을 하나 쓸 것 같다. 제법 재미있고 신기한 느낌이다.
양광희 -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	양광희 -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
김나래 -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	김나래 -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
유소린 -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	유소린 -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
홍은혜 -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	홍은혜 -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 주인공이 되어 보자.

도서 중 가장 와 닿지 않았던 부분(글쓰기의 생각과 달랐던 구절)과 그 이유

이능평회, 김남도, 이주연, 맹하늘, 흥은혜 - X

유은린 - 날이 저물어서 사방 어둡은 데, 누굴 대신 있게 남들은 같이 불결하든 내일이
불한데

전체적으로 느낀 점

- 이국연 - 평등도시, 워싱턴이라는 시랑에 대해 아득 생각이 업 업은 데, 영감이 일출 신란을 시화하면서 데 그림에 황홀했는지 알 것 같아 다른 그룹도 보인셈
- 유은린 - 이 시기에 독서를 해야하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끼어들음은 극은 책이여.
- 맹호남 - 감행 기쁘다
- 안영희 - 책이 더욱 여러 읽고, 여러 책을 하며 많았으면 한다.
- 김민호 - 유시민이라는 시랑과 지식을 좀 알고 있는 상에서 읽으니 어떤 개회에 대해서 주관자를 알 수 있는 기분이었던 것 같다.
- 함은혜 - 내일이 어렵다고 해서 읽기 싫었는데 어렵긴 했지만 그해로 읽은만 하고.
- 이 시랑에 ^{대해} 알게되어 좋았다. ^{유시민의}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다.

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짐

비행기를 - 죽서로 열심히 하려겠다.

아름다워 - 이번 여행은 너무 어려워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 여행을 열심히 하려하겠다.

이국적인 - 죽서로 열심히 해라겠다.

유소라 - X

기분이나 - 도시 한 번 더走一走, 내가 잘고 있는 유시맨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고 싶어 책 가운 세 줄 수 있게끔 여러 다른 사람을 알게 될 때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다.

항문에서 - 자야기 너무 어려워서기 때문에 계속도 배우고 있는 책을 자주 읽어보겠다.

1. 여간 글은 소변서 열매는 많은 양이 자료 큰 사를 해낼까?

2. 이 책을 읽으면서 유시민이 기대한 우리나라 현상?

3. 이 글은 소변서 들었던 유시민 스스로의 의문점을?

총평

·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. 이 책은 유시민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유시민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유시민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